

#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5월 19일

교회력(다해), 전체 25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다섯째 주일 성령강림절 창조절

☞ 오늘의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계 21:6).



요즘 찔레꽃이 한창이다. 아침이나 대낮, 또는 어스름이 찾아오는 저녁이나 한밤중, 어느 때나 찔레꽃 향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신비로 이끈다.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삶의 비밀은 너무 엄청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득하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삶(생명)의 비밀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이면서 동시에 존재 목표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1,2,4절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이 세상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믿음을 유지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자기열망과 푸념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완성해주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매혹적이며, 구원을 제공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함께

San - to, San - to, San - to Mi co razón tea do ra! Mi  
거 룩거 룩 거 룩 내 맘 열 어 주 찬 양 내

co - ra - zón te sa - ba de - cir; San - toer - es, Sen - or!  
맘 열 어 주 찬 양 - 해 거 룩한 주 님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홈 페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o/churchs>

이번주는  
2층 세미나 1실

**\*사죄기도 ... 다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치없이 당신의 용서를 다시 구합니다. 삶의 세월이 늘어날수록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만 확대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자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삶에 익숙해져버렸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다루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알면서 또는 몰라서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천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죄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기억에서 지워졌으니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91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 무덤 속에) ... 다함께**

김성호

이건용

느린 곳거리



1. 사랑하 는 우리예 수 무덤에  
 죽 음 권 세 영 - 원 히 - 승 리 한 줄 알 았 더 냐  
 악 한 무 리 특 - 세 해 - 승 리 한 줄 알 았 더 냐  
 영 원 하 신 주 - 예 수 - 사 랑 으 로 다 스 린 다

죽 음 권 세 영 원 히  
 물 러 가 거 라 물 러 가 거 라 죽 음 이 여 물 러 가 거 라  
 가 소 롭 구 나 가 소 롭 구 나 사 탄 권 세 가 소 롭 구 나  
 사 망 이 기 신 예 수 님 앞 에 원 도 한 도 다 사 라 지 고

생 - 명 에 - 수 부 활 하 션 다 할 - 렐 루 - 야 상 사 디 야  
 구 - 주 에 - 수 승 리 하 션 다 할 - 렐 루 - 야 상 사 디 야  
 사 - 랑 으 - 로 하 나 가 되 어 할 - 렐 루 - 야 상 사 디 야

## 설교전기도 ... 다함께

주님, 우리 모두 두렵고 설레는 심정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말씀의 영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1독서 사도행전 11: 1-18 ... 이유선 집사

### 성서교독 시편 148편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함께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하나님 찬양하라 높고높은 저곳에서 주하나님 찬양하라  
-주의모든 천사들이 주하나님 찬양하라 주의모든 군대들이 주하나님 찬양하라  
낮의해와 밤의달이 주하나님 찬양하라 반짝이는 못별들이 모두주님 찬양하라  
-하늘위의 하늘이여 주하나님 찬양하라 하늘위의 물들이여 주하나님 찬양하라  
너희들은 주님명령 따라지음 받았으니 너희들은 주님이름 소리높여 찬양하라  
-우리주님 너희에게 귀한자리 주시옵고 영원하게 지키도록 질서법칙 주시었다  
온갖짐승 가축떼들 기는것과 나는것들 세상모든 임금백성 세상모든 방백판관  
-총각들과 처녀들이 노인들과 아이들아 모두모두 우리주님 높은이름 찬양하라  
우리주님 이름만이 온천지에 높고높다 홀로주님 위엄만이 땅하늘에 가득하다  
-주님께서 자신백성 높이세워 주셨으니 주섬기는 모든성도 주높이는 모든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아 영광찬송 올릴지라

## 제2독서 요한계시록 21: 1-6 ... 이유선 집사

## \*제3독서 요한복음 13: 31-35 ... 이유선 집사

##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함께

♩. = 70

주님말씀 복되어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말씀 사모하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 설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 이준우 목사

## 설교후기도 ... 설교자

## 찬송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1,3절 ...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헌금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 ... 다함께

## 중보기도 ... 목사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알림 ... 목사

# 파송예전

## \*마침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절 ... 다함께

##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2019년 부활절 다섯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성도 여러분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생명수 샘물을 맛보았고, 지금도 마시면서 살아가는 중이니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 \*축복기도 ... 목사

## \*후주 ... 반주자

##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 반별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사도신경해설 반, 신학과 철학 반, 기도와 교제 반, 청소년 반
- \* 6월2일은 대구샘터교회 설립 1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 \* 5.18- 어제(5월18일)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39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헌금 310,000원  
 (2019/5/12)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 5,6월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부활절 5주	5/19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이유선	양혜선
부활절 6주	5/26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유인규	오미영
부활절 7주	6/2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채진진	윤혜정
성령강림주일	6/9		2층 세미나1실	정용섭	윤동희	박수진
성령강림후 1주	6/16		4층 아트컬리지5실	박재진	고중홍	이기령

## 5월 12일 설교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발췌

### 영생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이 아주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양'이 그것입니다. 26,2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라는 표현은 자칫 편애처럼 들립니다. 이런 표현은 궁극적인 진리를 말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은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은 자로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예수를 길ियो 진리요 생명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와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마치 텃밭과 사랑에 빠진 사람, 또는 그림이나 노래 같은 예술과 사랑에 빠진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리켜서 '내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양'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핵심은 영생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술가와 시인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이 주어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경험됩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자체가 이미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수렴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미혼모가 있다고 합시다.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시키기로 했습니다. 입양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와 입양할 사람의 관계는 이전에 남이었다가 이제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인,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불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가리킵니다. 그런 일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존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영생 경험은 종교적인 독단이나 자기도취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에, 구원의 광휘에 휩싸이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숨은 쉴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져도 걸을 수는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점수를 받으려고 전전긍긍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정말 실질적인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즐겁게, 그리고 단단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